

第143回國會
(閉會中)

5·18光州民主化運動
真相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第 4 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8月30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議事日程

1. 幹事選任의件
2.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審査된案件

1. 幹事選任의件 1面
2. 幹事(辛基夏)人事 1面
3. 委員會運營에 관한件 2面

(11時6分 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기 때문에 第4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真相調查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읍니다.

立法調査官 나와서 報告해 주십시오.

○立法調査官 朴昌熙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文東煥 방금 報告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委員 다섯 분이 辭任되고 새로 다섯 분이 補任되었읍니다.

그러면 먼저 補任된 委員들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趙贊衡委員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贊衡委員 平和民主黨 趙贊衡委員입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指導鞭撻을 바라겠읍니다.

그리고 本委員會은 앞으로 光州義舉의 真相을 歷史와 國民앞에 밝히는 데 熱과 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韓光玉委員께서는 오늘 會議에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나오시면 인사하게 하겠습니다.

權海玉委員께서 人事해 주십시오.

○權海玉委員 民主正義黨所屬 權海玉委員입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협조를 바라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음 李康熙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李康熙委員 民主正義黨 仁川 南·乙區 所屬 李康熙委員입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咸鍾漢委員께서는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當 特別委員會 職員의 이동이 있었읍니다.

吳聖均立法審議官 鄭仁孝立法調査官 金容九立法調査官 後任으로 金永善立法審議官과 朴昌熙立法調査官 權奇律立法調査官이 새로 오셨읍니다.

(職員人事)

1. 幹事選任의件

(11時8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幹事選任의件을 上程합니다.

平和民主黨所屬 幹事委員이신 李海瓚委員께서 사임하시고 辛基夏委員을 幹事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합니다.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은 辛基夏委員이 幹事委員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幹事(辛基夏)人事

○委員長 文東煥 辛基夏委員 人事해 주시기 바랍니다.

○辛基夏委員 平和民主黨所屬 辛基夏입니다.

우리 民族史에 劃을 긋는 5·18光州民主化運動이 일어난지 8년이 지난 지금 그 眞相을 소상히 밝혀서 이 나라에 民族의 正統性과 民族精氣를 이어주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 우리 特別委員會의 一員이 된 것을 대단히 보람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李海瓚委員께서 幹事 일을 맡아 보시면서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해 오셨지만 이번엔 個人的인 사정에 의해서 사임하시고 本委員이 우리 特別委員會의 幹事로 選任된 것은 더욱 영광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委員長님을 비롯해서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속에서 이 거룩한 일을 원만히 수행해서 우리 나라의 民族精氣를 이어주는 중대한 일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價値判斷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對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民族和合의 중대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總力を 경주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3. 委員會運營에관한件

(11時9分)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2項 委員會運營에관한件을 上程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12日 3次會議 이후 委員長과 4黨 幹事들이 委員會 運營에 관한 論議한 결과를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金仁坤委員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仁坤委員 金仁坤委員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事項이 전개되었는데 간단하게 報告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報告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더라도 많은 指導鞭撻을 바랍니다.

지난 3次會議後의 幹事會議結果를 중심으로 해서 그간의 과정을 報告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日 全體會議에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出席時期와 方法에 관하여서는 委員長에게 一任을 해 주셨습니다.

8月17日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를 論議하고 다음날 崔 前大統領에게 證言時期와 證言方法 등을 決定하기 위하여 本 特委의 幹事들이 崔圭夏 前大統領을 訪問하고자 하니 가능한 限 빠른 時日 안에 面談時日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담긴 委員長의 私信을 發送하였습니다.

그리고 8月17日의 幹事會議에서는 8月29日부터 約 1週日 以內에 特委 全體會議를 열어서 光州事態勃發 또는 初期狀況을 마무리짓기로 하는 決議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特委에서 國防部에 資料提出을 요구했음이다라는 搜查記錄 裁判記錄 등은 그 量이 너무도 방대하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과「박스」만한 크기로 22「박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量이 많으므로 인해서 당초에는 約 50帙를 요청했음이다라는 5帙만 複寫를 해가지고 交涉團體에 한 帙씩 그리고 本 特委에 한 帙씩을 가지고 보도록 이렇게 協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專門事務補助者 1人을 採用하여 各黨이 檢討한 裁判記錄 등을 聚合하는 등 모든 調查活動을 補佐하도록 하되 그 專門家는 委員長이 辯護士協會 등에 推薦 依賴하여서 總務團과 協議하여 採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23日 幹事會議에서는 22日 崔 前大統領의 答信에서 4黨 幹事が 같이 오면 만나겠다고 하는 答信 內容에 대해서 4黨 幹事들이 論議한 결과 23日 午後에라도 崔圭夏 前大統領을 訪問하고자 하여 23日 15時에 崔圭夏 前大統領을 찾아가고자 연락하였으나 出他中이라 하여 訪問하지 못했습니다. 8月24日 幹事會議에서 다시 崔圭夏 前大統領의 訪問問題를 協議한 결과 4黨 幹事が 같이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幹事 代表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는 決議를 해서 民主黨의 吳景義委員이 幹事들 代表로 崔圭夏 前大統領을 訪問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8月26日 11時에 特委幹事를 代表해 가지고 吳委員께서 崔圭夏 前大統領을 訪問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幹事會議에 報告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충 紙上을 통해서나 혹은 各黨의 幹事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요약하면 崔圭夏 前大統領의 意思는 特委活動에 도움이 된다면 積極的인 協調를 하겠다 그러나 그 時期와 方法은 本人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事情에 따라 합당하게 하겠다는 趣旨였습니다.

따라서 當 幹事會議에서는 各黨 幹事들의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證言의 時期와 方法은 證人이 選定하는 것이 아니고 特委에서 決定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證人出席要求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래서 證人出席要求書를 그날 發送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當日 幹事會議에서는 申鉉礪씨를 證人으로 追加 採擇하기로 決定을 하였읍니다. 8月27日 幹事會議에서는 29일에 예정된 證人訊問問題와 全體會議 運營問題를 심도있게 합의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29일부터 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여러가지 事情때문에 한 두 사람의 證言을 聽取하고는 그 다음에 상당한 期間동안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차라리 「올림픽」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國內問題도 있고 해서 그것은 또 言論人「테러」관계라든가 各黨 總裁와 大統領과의 面談關係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또 崔圭夏 前大統領이 證言할 수 있는 時期問題라든가 現時點에서 一段階 調查活動을 「올림픽」 직후에 시작을 해서 約 1週日 前後해 가지고 1段階를 마무리짓는 것이 오히려 效果의이고 또 政局安定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내렸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國民에게 誠意를 보일 수도 있고 이렇다 하는 그런 合意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全體會議가 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調查活動을 하는 그러한 準備事項을 위해서 여러가지 證人問題라든가 또는 資料의 檢討라든가를 하고 「올림픽」 直後에 단시일내에 效果的으로 調查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 이 會議에 나와 意見을 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報告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충실하게 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證言을 청취하는 일들은 「올림픽」 뒤로 미루게 하고 그 동안 各黨에서 준비하고 또 서로 앞으로 어떤 順序로 어떻게 청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再調整해 가지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자세히 청취하자 하는 것으로서 幹事會議에서 결정해서 合意를 보았읍니다.

異議가 없으시면 그대로 委員會를 運營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른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사실은 光州「비디오」를 보고 散會할까 했지만 보고 나서 다시 散會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일단 散會하고 「비디오」를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辛基夏委員 지난번 우리 委員會에서 各部處에 資料提出要求를 했는데 그에 대한 各部處의 對應이 미흡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고자 하는 發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特別委員會에서 國防部와 國防部傘下의 各部隊를 상대로 해서 많은 資料要請을 한 바가 있읍니다.

그 機關은 國防部 陸軍本部 中央文書管理團 合參本部 2軍司令部 特戰司令部 戰鬪教育司令部 31師團 20師團 特戰司令部隷下部隊인 3旅團 7旅團 11旅團 이상 12個機關입니다.

國防部에서 이상 12個 機關에 대한 資料要請中 一部를 보내왔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중요한 文書는 軍事保安業務施行規則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내오지 않았는데 軍事保安業務施行規則에 의하면 이를 거절할 이유도 없고 이를 없애 버릴 수 있는 하등의 根據規定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國防部에서는 어떠한 根據規定에 의해서 이를 없애버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保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내오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한 根據規定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방금 말씀드린 12個 機關에 대한 資料提出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우리 委員會 이름으로 촉구를 했으면 싶고 또한 다시 보내오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명백한 根據規定

을 明示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은 國防部를 중심으로 보면 80年度 文書 「마이크로 필름」 제출을 비롯해서 戰鬪詳報 作戰狀況日誌 戒嚴狀況日誌 충정作戰詳報 作戰計劃綴 作戰日誌綴 狀況日誌綴 作戰會議錄綴 作戰狀況報告綴 作戰命令綴 作戰指示綴 永久保存文書記錄臺帳 이러한 열두가지인데 만일 이러한 資料 중에 軍事保安業務施行規則에 의거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은 文書가 있으면 그것은 規定의 어떤 條項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文書의 破棄를 뜻하는 것인지? 다시 첨언해서 재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年度5月17日 陸海空軍 各軍指揮官會議 會議錄 그 중에는 參席者와 會議內容이 記載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12個 機關에 대해서 여기 열세가지의 資料에 대해서는 다 공통되고 陸軍本部에 대해서는 이외에 定期作戰報告 第79-12 80-1·2號 80年1月1부터 3, 陸軍作戰計劃27 보수정 第11號 定期作戰報告 80年度4-5 3軍戰鬪詳報 第1號 24충정作戰詳報 80年度...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80年度입니다. 31師團 對間諜浸透作戰資料 戰教司戰鬪詳報 特戰司戰鬪詳報 31師團戰鬪詳報 戒嚴司戒嚴狀況日誌 戰教司作戰狀況日誌 陸軍本部作戰參謀部 定期作戰報告 및 狀況處理綴 이것은 定期作戰報告 晝間作戰報告 狀況日誌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陸軍本部軍事研究室 戰鬪詳報綴 陸軍本部政策企劃室 上部指示綴 陸軍本部軍事研究室 陸軍史 陸軍本부의 政策企劃室 總長指示綴 陸軍本部政策企劃室 合意文書綴 이상 전부 80年度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中央文書管理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열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合同參謀本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2軍司令部 特戰司令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 戰鬪教育司令部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열세가지 이외에 部隊解體 및 改編時는 文書管理規程 第112條에 의거해서 全量 第1保存所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國防部에서는 이를 破棄했다고 回信해 온 바 있습니다. 이 破棄한 이유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31師團의 경우나 20師團 3空輸特戰 3旅團 7旅團 11旅團 이 3個 機關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성의있는 資料提出을 촉구하고 만일에 그에 응할 수 없다면 응할 수 없는 根據規定을 막연하게 規則이나 規定의 이름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規定까지 條項까지 써서 根據規定을 명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動議합니까?

○辛基夏委員 예. 動議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再請있습니까?

(「再請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再請있습니다.

우리 본래 當局에 성의껏 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한번 議決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만스러워서 이렇게 資料를 이번에는 좀 더 具體的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마는 요청하는 動議 再請이 있습니다.

異議가 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異議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金仁坤委員 말씀하세요.

○金仁坤委員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計劃을 치밀하게 짜 가지고 效果的으로 特委를 運營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委員의 생각은 요번에 소강상태에 있는 동안에 지극히 效果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資料같은 것도 역시 너무 많이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特委運營을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金大中內亂陰謀事件만 하더라도 사과케작만한 걸로 해서 일곱 「박스」가 됩니다. 또 光州事態記錄만 한다고 하더라도 열일곱 「박스」가 됩니다. 그걸 한 「박스」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그저 무작정 要求만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律師들도 계시고 또 전체를 파악하고 계시고 하니까 證人採擇關係만 하더라도 수백名 해놓고 뭐 우리 任期 차도록 하더라도 그건 다 못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 정도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一段落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計劃을 짜가지고 證人關係 書證關係 여러 가지 關係를 效果的으로 할 수 있는 이런 方法을 委員長님께서 잘 아시는 委員들과 타협해서 한번 짜보시고 이걸 방향을 幹事會議에서라든가 本會議에서 合意를 해가지고 그런 方法으로 해야 效果的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證人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알까로는 수백명을 申請해 왔는데 그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 들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얘기를 열 사람 스무 사람한테 들어봤자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 問題의 歸趨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또 어떻게 進行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光州 사람들과 또 거기에 被害를 입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엇그저께도 한 千餘名 이상이 모여가지고 「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效果的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科學的으로 이번에 짜서 물론 그것이 꼭 그렇게만 될 수는 없는 겁니다마는 해봐서 필요하다면 다시 더 追加로 證人도 申請할 수 있고 書證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非科學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3原則이 맞을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計劃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要請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제가 보기에 앞으로 幹事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을 얻어서 세가지 原則으로 아주 效率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資料 꼭 필요한 證言을 效率的으로 선택하는 일 들쭉로 그렇다고 해서 보아야 할 資料 들어야 할 證言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두가지 均霑關係의 調和가 우리가 찾아야 할 藝術인 것 같습니다.

우리 幹事會議를 통해서 이 두가지를 重疊이 없게 效果的으로 그러나 빠뜨리는 사람이 없게 하고 세계로 이것을 效率的으로 하기

위해서는 專門委員會를 빨리 얻도록 해서 그분의 협조를 충분히 얻자 이렇게 해서 우리 幹事會議에서 「올림픽」 期間중에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敏燮委員 말씀하세요.

○李敏燮委員 委員會의 效果的인 운영을 위해서 두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黨의 입장에서 이번에 참 歷史的으로 중요한 온 國民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올림픽」의 成功的인 開催를 앞두고 우리 光州真相特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爭點이 뜨거울 수 있는 이러한 證言의 聽取를 一貫性있게 「올림픽」 이후에 듣도록 결정이 되고 합의가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고 이렇게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特別委員會가 정말 國民이 기대하는 만큼 效率的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真相을 追跡하고 또 調査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事前整備作業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자세를 갖추는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國會에서 調査特別委員會라는 것은 다른 政策的인 立案을 위한 特別委員會와는 다르게 調査의 公正性 우리 調査委員들의 공정한 資格과 자세 이런 것이 우리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의 關鍵이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國監調法에 보더라도 13條에 보면 議員은 직접 利害關係가 있거나 公正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해서 監査 또는 調査에 參與할 수 없다는 명백한 調査의 公正性을 보장하는 條項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또 그 2項만 보더라도 本會議 또는 委員會가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시 말해서 현저한 公正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든가 利害當事者든가 할 때에는 그 議決로 當該委員會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강력한 條項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法의 정신은 우리가 정말로 歷史앞에 엄숙히 특히 光州真相調查를 함에 있

어서 調査의 公正性和 中立性이 하나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번에 우리 與黨委員이 不參한 가운데 一方的으로 野黨 3黨이 같이 議決을 해서 前職、統領에 대한 證言出席要求를 통과시킨 것도 우리 委員會의 效率적이고 정말로 合意的인 그러한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瑕疵를 남겼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또 다시 자주 반복된다면 결코 우리 特委의 원만한 運營이나 調査活動에는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委員長께서는 우리 委員會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보다 노력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特委가 자칫하면 一方的으로 또는 獨善的으로 흐르기 쉬운 상당한 危險性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全體會議에서 우리 與黨이 不參한 가운데 證人出席動議를 可決시킨 것은 나름대로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덧붙여서 證言의 時期와 方法까지를 委員長한테 一任하도록 한 그러한 附帶動議를 또한 可決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證言의 採擇이나 證言의 聽取에 있어서 證人의 採擇은 물론 중요하다고 하는 證言의 方法과 證言의 時期 또한 採擇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法에는 證人의 出席時期나 方法 證人의 採擇 모두가 우리 法에 의해서 全體會議 또는 本會議에서 이것을 議決하게끔 못을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證言의 時期나 方法을 委員長한테 一任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委員會運營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을 豫示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論理에 의한다면 비록 前職大統領에 대한 證人採擇問題뿐만 아니라 앞으로 與野에 異見이 있을 수 있고 爭點이 될 수 있는 모든 證人의 採擇이나 어떠한 運營의 權限을 委員長한테 모두 委任해 버릴 때 우리 委員會의 機能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1人 委員長의 委員會 機能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 關係法의 瑕疵를 露呈하

는 것이고 이러한 運營이 反復이 되고 모든 權限을 委員長에게 一任하는 이러한 一方的인 決定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기는 政治적으로 매우 민감한 委員會이기 때문에 委員長도 역시 한 黨을 所屬하고 있고 그 黨의 利害關係를 대표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마땅히 그러한 證言의 時期나 方法은 4黨의 幹事合意에 委任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委員長한테 一任했다는 것은 與黨이 반대할 경우에는 一方的으로 이 特委를 運營해 나가겠다는 그런 底意로밖에는 우리가 解釋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物理的인 힘으로 힘을 行使할 경우에는 역시 힘은 힘과 부딪쳐서 커다란 자질을 빚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委員長께서 本格的으로 證言聽取하다가 이러한 特別委員會 運營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與野가 정말로 균형된 하나의 論理와 힘의 바탕으로서 원만하게 이 委員會가 運營될 수 있도록 委員長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事態가 再發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저희 黨을 代表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입니다.

지금 民正黨의 李敏燮幹事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會議가 이런 문제는 提起되지 않으리라고 봤으나마는 지난 幹事會議에서 앞으로의 會議에 있어서는 아까 金仁坤委員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밀하고 科學的인 그런 調査計劃書를 作成을 하자 그런 合意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지금 李敏燮幹事께서 말씀하시는 마치 本 特委가 與黨을 배제시킨 채 野黨의 獨走만으로 運營되고 있는 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말씀드릴 것은 前職幹事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열두차례의 幹事會議가 있었는데 幹事會議에서의 討論過程을 꼭 지켜보면 여덟 명의 證人을 採擇해서 出席要求書를 보낸 바 있습니다.

崔圭夏 申鉉禧 周永福 李煥性 金大中 金相賢 鄭東年 鄭基用 이렇게 여덟名을 擇했는데 이 중에서 일곱名을 擇할 때까지는 단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나머지 한사람 崔圭夏證人의 採擇에 있어서는 열두차례 勿驚 數十時間의 證人採擇與否를 놓고 幹事會議를 거듭했습니다. 本 光州特委가 8月 한달동안 당연히 法에 明示되어 있는 崔圭夏證人의 採擇에 始終如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野黨에서는 「올림픽」에 임박해서 이런 證言聽取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月 中旬부터 崔圭夏證人의 採擇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幹事會議에서 거듭되는 民正黨幹事의 議事進行發言과 강력한 沮止術策으로서 한달 동안 겨우 光州特委가 崔圭夏證人의 證人採擇과 出席要求書 發付로 始終하고 말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本委員으로서 國民들 앞에 光州特委가 한달 동안 勃發에 관련된 證言聽取까지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올림픽」이후로 미루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謝過를 먼저 表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과정에서 本委員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民正黨이 충분히 特委 真相糾明에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기보다는 隱蔽物을 幷호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會議에 있어서도 열名이 넘는 民正黨 委員이 議事進行發言을 통해서 議事進行을 妨害하는 그런 모습을 國民들이 역력히 보았을 줄 압니다. 그리고 停會를 통해서 會議場을 나간 뒤에 議事進行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野黨만에 의해 가지고 崔圭夏證人의 採擇과 調查時期 方法에 관한 것을 委員長에게 一任이 可決이 되었습니다. 民正黨보고 어느 누구 委員보고 나가라고 한 것도 없고 사실 나가기를 바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一方的으로 퇴장하는 政府 與黨의 責任있는 政黨으로서의 모습으로 5共非理 혹은 光州特委의 真相을 隱蔽하려는 政略의인 觀點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國民의 代表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行爲로 인해 가지고 議事進行을 妨害한다든지 本 特委의 調查活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民正黨에서는 積極 協調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앞으로 「올림픽」이후에 證言聽取過程이라든지 그 기간에 調查計劃書 및 資料 調查過程에 政府 與黨으로서의 責任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金仁坤委員 제가 자주 發言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共和黨 委員들이 두 분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한번 더 하렵니다.

우리 이렇게 解釋을 합시다 오늘도 日前에 퇴장하고 난 다음에 언짢은 분위기 속에서 野黨委員들만 해 가지고 開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아마 퇴장하신 委員들도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퇴장 안하고 合意한 저희들도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도 못 풀어갈 方程式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진실로 그 진실에 가까운 光州事態問題를 빨리 調查하고 解決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方程式을 과연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民主主義社會에서 우리가 討論을 하다 안되면 多數決로 하는 것이 原則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幹事會議를 民正黨幹事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분의 意見을 맞추고 民正黨과 같이 共同步調를 취하기 위해서 다섯번은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民正黨은 그 분이 오늘 보니까 그만 두셨는데 잘 그만 두셨는데 光州事態때 희생당한 사람들을 暴徒인가도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정말로 政策的으로 政略的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근 10年 가깝게 지나간 일인데 아무리 우리가 소상스럽게 한다면은 100% 眞實에 접근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與黨이나 野黨이나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 속된 말로 말하면 오늘의 좋은 분위기로 가는데 우리 全羅道 말로 말하면 五臟을 굶는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어서 교란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民正黨이 與黨이 보세요 뭐 말할 것 없어요 將星 이런 사람들이 言論人 「테러」하고 부끄럽지도 않으

세요? 나 같으면 오늘 못 나와요 될 그렇게 얼굴 내놓고 얘기해요. 분위기 좋게

○李道先委員 왜 거기서 자꾸 끊어요?

○金仁坤委員 가만히 제세요. 李道先委員 역시 全羅南道 出身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 故鄉이 麗水시지요? 왜 자꾸 그렇게 좋게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함을 건드려가지고 기분 나쁘게 만드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웃으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지나간 얘기를 그렇게 건드려대고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與野를 막론하고 最大公約數를 찾아서 웃으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짓을 다해 가지고 우리가 다섯번 여섯번 다 해결해 주고 합의를 해가지고 해도 안되니까 이것은 多數決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與나 野나 자기들 마음에 조금 안 맞더라도 자기들의 政策的인 政策術에 이용을 못하더라도 조금 양보하고 서로간에 양보했을 때 이 문제는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나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염증을 느껴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말장난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진실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서로 노력했을 때 하나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李道先委員 이제 金委員님 말씀이 제쳤는데 여기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 異議를 거는 사람 없습니다. 지나간 會議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서로가 조금 참고 또 양보하면서 우리 特委가 목적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취지의 李敏燮委員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李海瓚委員께서도 말씀이 제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나간 일은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더욱 잘 하도록 합시다 하는 그러한 委員長에 대한 委員會 運營의 촉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委員會 運營을 하는데는 항상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勸諭

합니다.

그런데 이제 金仁坤委員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委員會와 관련없는 얘기를 가지고 相對政黨을 공격하는 것같은發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땅히 그것은 議題外가 아닙니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人身攻擊 비슷한 말씀 그런 말씀도 앞으로는 없어야 합니다. 여기는 故鄉을 대표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國民을 대표하고 國會 本會議의 議決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맡은 特委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지 어느 한 地域을 대표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國民을 대표하는 그러한 個別的인 憲法機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도 서로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發言을 하다보면 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제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申河澈委員 統一民主黨 申河澈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光州特委에서 幹事 여러분들이 그간 무진한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委員會의 활동에 있어서 그간 數次의 幹事會議을 거쳤고 또한 幹事會議을 거쳐서 證人들의 申請을 各黨에서 調查委員들이 했는데도 出頭를 안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한다고 해서 이것 안됐습니다마는 證人 金大中씨께서 그간 內亂陰謀事件關與로 인해서 이 光州問題에 證言이 필요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光州事態에 대한 真相 그 자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證言하시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光州事態에 대한 真相料明委員會라고 한다면 우리가 金大中先生의 內亂陰謀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金大中證人을 申請했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이 委員會가 원활히 하루 바빠 모든 것을 國民앞에 밝히고 終結을 짓기 위해서는 內亂陰謀事件의 관계는 그 人員이 20餘名이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他人이 나와서 證言을 해주시고 光州事態에 대한 문제만을 證言을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문제도 委員長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안하셔서 相議해서 그 분이 證言에 나오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金大中 證人께서 물론 國家的인 他國과의 관계에 있어서 代表로서 出國하는 그 점은 우리 委員 여러분들이나 本委員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서 採擇을 해서 決議를 했을 때 그 분이 못나오신다고 해서 그간 幹事會議에서 當 委員會 代表로서 직접 만나보았을 때 어느 때가 되면 證言을 한다는 얘기는 받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前大統領이라는 禮遇에서 그분이 어떤 생각에서 出頭를 안하는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누가 안나오면 나도 證言을 못 나가겠다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이 場所는 엄연히 말해서 真相 자체를 糾明하자는 것이지 어느 政派나 어느 個人에 대한 宣傳場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認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委員長님께서 이런 문제를 더 深度있게 생각을 하셔서 원활히 이 일을 發展시켜서 終結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願하는 바입니다.

○李海瓚委員 지금 申委員님께서 몇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申委員님이 그 동안 光州特委 委員으로서의 資料調査를 어느 정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參考삼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民主黨 幹事께서 幹事會議에서 台意가 되고 討論된 내용을 貴黨의 委員들한테 報告하셔가지고 또 委員들의 의견을 들어서 幹事會議에 나오셔서 하는 이런 民主的인 節次過程을 거치면 그런 말씀이 안나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黨에서는 그런 節次를 거쳤기 때문에 大體的으로 幹事會議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本黨의 委員들은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金大中 證人の 內亂陰謀事件關聯 部分에 대한 證言聽取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申委員님께서도 잘하시다시피 80年度에 5·17 戒嚴擴大로 인해서 여러사람이 連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光州에서 事態가 勃發이 되었는데 7月10日 戒嚴司令部搜查本

部 發表에 의하면 金大中씨가 光州市民들을 煽動을 해서 國家를 變亂했다고 하는 것이 그 發表文의 骨子입니다.

그로부터 지난 8年동안 政府與黨의 일관된 發表는 金大中씨가 光州市民들을 教唆해서 政府를 顛覆시키려고 했다 政府를 顛覆시켜서 政權을 탈취하려고 했다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이 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를 밝히는 것은 光州事態勃發의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決定的인 대목입니다. 一般 國民들은 5·17戒嚴으로 인해서 소수의 軍部勢力이 政權을 奪取하기 위해서 光州事態를 잔혹하게 加處한 것이냐 아니면 金大中씨가 政權을 위해서 光州市民을 教唆해서 內亂을 煽動한 것이냐를 밝히는 것이 本 特委의 課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黨幹事が 合意해서 金大中의 서울의 國民聯合이라든가 이런 쪽의 內亂陰謀에 관련된 부분을 調査하자는 趣旨가 아니고 光州事態의 內亂陰謀에 관련된 부분을 調査하자는 趣旨로 證人으로서의 立證 趣旨를 분명히 밝혔고 그에 4黨幹事が 단 한 점의 異議도 없이 合意를 했던 사실이 幹事會議 記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本 委員會가 金大中 證人한테 보낸 出席要求에서도 그러한 立證趣旨가 明示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申委員께서 그러한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認知하지 못하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本 特委의 共同委員으로서 심히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19日 證言聽取가 29日로 延期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2日 證言聽取를 豫定했던 것이 19日로 延期된 배경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國防部라든가 靑瓦臺 秘書室이라든가 이런 政府關係部署의 資料提出이 未備해서 일단 19日로 延期했습니다. 19日로 延期해 놓고도 18日 會議까지도 國防部の 資料가 거의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9日에 證言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19日은 金大中總裁가 「필리핀」을 訪問할 豫定으로 되어 있었는데 19日 證言聽取 決定할 적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黨幹事合意下에서 저나 文東煥 委員長이 그런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점을

他黨의 幹事들에게 남득시키고 그런 두 가지 要因에 의해서 發言을 29日로 延期하는데 아무런 異議가 없이 合意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의 사정을 충분히 認知하지 못하신 점을 앞으로 光州特委를 運營하는데 있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달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幹事會議를 통해서 議題가 調整이 되고 할적에는 그 幹事會議의 結果가 各黨의 委員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報告되고 委員들의 의견을 들어서 幹事が 調整을 하고 그런 토대위에서 特委가 運營되는 民主的 意思를 수렴하는 그런 民主意思收斂過程의 원활을 위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發言權주세요」하는 이 많음)

○委員長 文東煥 發言權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發言權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과거에 들었던 것을 불필요하게 반복하면서 감정만……

(「委員長! 제가 한마디만」하는 이 있음)

發言權을 드립니다. 좀 정리하시는 角度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委員님 말씀하세요.

○朴泰權委員 統一民主黨의 朴泰權委員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오면서 사실 작자가 지나간 날을 많이 反省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도 오늘만큼은 우리가 지나간 일을 정리하고 새로이 우리 國民的인 또 世界的 祝祭인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차원은 앞서지만 그래도 우리 國民의 代表고 또 우리 光州特委에서 모든 委員들이 또 그 중에 代表이신 幹事분들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좋은 結論을 내가고 「올림픽」뒤에 다루자 관계되시는 분들은 급하고 또 國民들은 빨리 알고자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結論을 내려서 오늘 그렇게 進行하고 마무리를 하자 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다 同感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發言하시는 분들이 물론 各黨의 입장이나 또 個人的 意思를 表現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相對를 좀 낮추어 보는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本意 아니게 失手하신 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 얘기이외에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의미에서 發言을 그만 하시고 오늘 이 特委의 會議는 이것으로 끝나치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남은 쉬는 기간에 많은 準備를 해서 보다 높은 우리의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準備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제가 아까 報告事項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幹事會議에서 崔圭夏 前大統領을 證人으로 모셔오기 위한 書信을 보낼 때 委員長의 私信으로 보냈나 이렇게 報告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문제는 좀 檢討하셔서 訂正해서 記錄에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光州特委 委員長의 名義로 보냈다고 해야지 私信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金委員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訂正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會議는 이것으로 마칠 것을 正式으로 提案합니다.

○李敏燮委員 제가 發言을 한 것이 우리 金仁坤委員의 말씀마따나 조금 마음을 언짢게 해드렸다면 그것은 제 본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 特委를 運營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 與野幹事들이 정말 노력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課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特委의 원만한 運營을 위해서 또 與野가 오손도손 정말 같은 입장에서 眞實을 파헤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眞意였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特委의 活動을 회피해왔다거나 또 이제 와서 지나온 일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잘못했다 누구때문에 會議가 延延되었다 活動이 안되었다 이런 얘기는 굳이 이 자리에서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成功的인 「올림픽」의 開催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입장에서 더이상 참 날카로운 이 서로의 感情을 조금이라도 자극하는 그런 發言이 더 이상 안나오기를 바라고 또 제가 처음 얘기를 꺼냈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方向에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잘 運營해 나

가자 하는 얘기로 오늘 이 모임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吳委員한테 發言權을 드릴텐데 사실 오늘 나는 기분 좋게 끝내고 멋있고 신나게 점심먹고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이제 吳委員님 마지막 發言하시는데 오늘 점심 신나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發言해주세요.

○吳景義委員 委員長 말씀이 저의 뜻하고도 일면 통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중요한 任務를 띠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山積해 있는데 先輩委員님들 몇분 말씀처럼 可能한 限 特委에서는 相對方의 人格이나 또 相對便의 또 相對政黨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서로 고려하면서 우리가 本質的인 문제에 신경을 써야지 여타의 어떤 個人感情이나 혹은 他黨의 어떤 불미스러운 점을 이 자리에 露呈시켜서는 피차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先輩님들 몇분께서 表現하셨듯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感情이 있기 때문에 피차에 五臟六腑를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진실로 이 자리에 계시는 先輩委員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 特委에 이렇게 選任이 되셔서 나오신 분들은 진실로 光州問題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渾身의 힘을 기울이실 분들이 나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萬의 하나 잣밤에 신경을 쓰는 黨利黨略의 次元에서 우리 本質的인 문제를 糊塗 내지는 회색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民主黨問題를 李海瓚委員이 말씀을 하셔서 또 오늘 공교롭게도 모처럼 나오신 申河澈先輩가 表現中의 잘못인지 아니면 本人의 眞意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그래도 野圈3黨이 지금까지 보조를 맞춰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에 오늘 신나게 점심을 먹으려고 計劃을 세운 이 좌석에서 괜히 서로간에 언짢은 분위기로써 마쳐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도 제가 명색이 幹事이고 또 李海瓚委員은 오늘 幹事를 그만 두시니까 훌가분한 기분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民主黨에 대한 여러가지 指摘事項을 어떻게 들으면 좋은 忠告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니까 저도 체면이 좀... 그런 점들을 우리 서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했으면 하는 것을 先輩委員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에 대한 忠告라면 저는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委員長의 좋은 注文이 계셨듯이 우리는 앞날을 생각해서 證言은 듣지 못할지라도... 안할지라도 또 그 過程에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으로 「울림픽」 期間동안에 우리 問題를 資料나 모든 問題를 잘 檢討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이상 딱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委員長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가지를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威鍾漢委員 새로 오셨기 때문에 人事해 주세요.

(威鍾漢委員 人事)

몸으로 人事하신 人事가 참 人事인줄 알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점심맛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拍手 한번 칩시다.

(一同拍手)

그러면 이것으로써 우리 會議를 끝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時14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權 海 玉	辛 卿 植
李 康 熙	李 光 魯	李 肯 珪
李 道 先	李 敏 燮	李 炳 勇
鄭 東 鎬	威 鍾 漢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崔 鳳 九
金 正 秀	朴 泰 權	申 河 澈
吳 景 義	崔 正 植	金 仁 坤
鄭 夢 準		

○委員아닌出席議員

鄭 雄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立法審議官 金 永 善

【報告事項】

○特別委員變更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 運動真相調查特別	鄭 雄	韓光玉	平和民主黨
	鄭祥容	趙贊衡	平和民主黨

(8月17日字)

委員會	舊委員	新委員	交涉團體
5·18光州民主化 運動真相調查特別	鄭東星	咸鍾漢	民主正義黨
	朴熾太	權海玉	民主正義黨
	趙榮藏	李康熙	民主正義黨

(8月20日字)